

중국섬유산업 5가지 문제점 여전히 심각

중국방직보(中國紡織報)는 중국 섬유산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① 전적으로 아직 기술수준이 낮다

중국섬유산업에 있어서의 현재기술 수준은 국외 시장은 물론 국내 시장의 요구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신상품 개발도 잘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중저가 존(zone) 상품 생산에만 집중하고 있어, 동업자간에 과당경쟁 상태가 빚어지고 있다. 수출도 고부가가치상품은 적고 중급품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요구되는 수준에 맞는 중국산 소재는 적어서, 생지는 외국에서 들여와서 어패럴을 생산하는 가공무역이 많다.

② 생산설비가 낡고 생산성이 떨어진다.

중국의 면방적은 70 80년대의 설비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코우머사의 생산비율이 50% 이상이나 중국은 14%에 불과하다. 중국의 면방적 1만추당 사용인원은 약 300명인데, 선진국은 보통 60명이고, 일부는 30명의 공장도 있다.

③ 화합섬 메이커 1사당 생산능력이 작고 집중도가 떨어진다.

중국의 화합섬 메이커 1사당 연간 생산능력은 평균 1만 3천톤에 불과하며, 10만톤 이상 되는 기업은 7개사 뿐으로 전체 생산능력의 23%를 점하고 있다.

④ 면화 등 원료의 유통개혁이 늦어지고 있다.

면화유통개혁이 선진국에 비하여 너무 뒤떨어져 있다. 그러한 결과로 중국산 면화 등 원료는 국제 시세보다도 그만큼 비싸게 되어 중국의 면방직기업의 채산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주고 있다. 합섬원료나 원사, 원면은 고관세(高關稅)와 수입허가증제도 때문에 메이커가 싼 값으로 해외에서 들여와도

코스트·메리트를 받지 못하고 있다.

⑤ 지구간의 연계가 약하다.

중국의 서부지구(地區)의 섬유가공능력은 전국의 12% 정도에 불과하며, 생산액 세어(share)는 5%도 안된다. 풍부한 섬유자원과 저렴한 노동력이 있는데도, 어패럴 생산 세어는 2%에 머문다. 연해부(沿海部)의 유력기업이 서부기업(西部企業)과 연계하여, 서부에서의 생산확대를 장려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